

국제학 도서관 탐방

윤 정 욱
(국제학도서관)

1. 국제학도서관의 설립 배경

국제학도서관의 설립 모체인 국제대학원의 기원은 1992년 지역종합연구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종합연구소는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각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연구소는 해외지역연구 심사와 평가 업무 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지역연구관련 도서와 학술지,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소의 회원 및 지역연구 전문가들에게 제공하는 해외자료 보급 창구로서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대학교는 1996년 정부의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사업 지원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1997년 2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지역종합연구소를 확대·개편하여 협동과정으로 국제대학원인 국제지역원을 설립하였다. 국제지역원에서는 지역종합연구소의 연구와 해외자료수집, 발간, 보급 기능을 승계하였다.

국제학도서관은 정보자료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문 연구, 교육 기반 조성 정책에 따라, 통상협상, 국제협력, 지역학, 한국학 분야의 전문도서관으로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그 기능을 확대하였다.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자체적으로 웹 서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및 소장 자료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지해 오다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2003년 중앙도서관 솔라스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통합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6년 7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승격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학도서관으로 공식화되었다.



<사진1. 국제학도서관 전경>

2. 국제학도서관 이용안내

정문에서 왼쪽 순환도로를 타고 관악캠퍼스를 올라가다 보면, 두 동의 국제대학원 건물이 나란히 서있다. 신관(140-1동) 3층과 4층에 국제학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2006년 11월 현재 단행본 35,214권, 영상자료 2,300종, 학술지 500여종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도서관은 국제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학생, 교수, 지역학, 국제학에 관련된 모든 연구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국제학도서관은 국제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대학원의 취지에 맞추어,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보화하고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연구·교수여건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국제학 관련 전문 도서관을 지향하며, 전공과 지역별로 분류된 커리큘럼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매 학기 초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이용과 웹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위성 케이블을 설치하여 도서관내에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의 방송시청이 가능하며, 소그룹 규모의 학생들이 모여서 시청각 자료를 열람하며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국제학도서관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gsis.snu.ac.kr/library> 이며, 현재 사서 2명과 시간제 조교 4명,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3층 정기간행물실에 한해, 학기 중 오후 9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3. 국제학도서관 실별 안내



<사진2. 도서관입구>

국제학도서관에 들어서면 바닥에 깔린 파란 카펫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일반 도서관들의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소음방지를 통한 집중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특수 카펫은 이동할 때 마다 전해오는 안락함과 시각적 편안함을 주는 색상으로 도서관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인체공학과 도서관 인테리어를 최대한 배려하여 맞춤 제작한 열람용 책상과 의자 또한 국제학도서관만의 특색이다.

3.1. 정기간행물실

국제대학원 신관 3층에 위치한 정기간행물실은 약 500여종의 학술지를 소장하고 있다. 이 중에는 유료로 구독하는 것 외에도 기증 및 교환으로 입수되는 분량도 상당하다. 신간 학술지와 재분된 구간 학술지가 한 실에 비치되어 있어 소장저널 전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다. 다양한 웹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 중앙도서관과 연계하여 인쇄매체로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각종 저널의 출판중인 이슈와 과거 이슈의 이용도 가능하다. 국제학도서관 홈페이지에, 여러 웹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저널들 중에서 Full-text 제공이 가능한 저널들을 모아놓았다. 이 리스트는 국제학 분야 주요 학술지와 관련 저널들의 모음으로, 이용자들은 각각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저널들의 전문제공 여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에서도 e-journal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전 주제의 저널이 제공되므로 그 분량이 방대하다. 보다 신속한 브라우징이 가능하며 start-date를 명시하여 이용 가능한 볼륨정보도 리스트에서 바로 알 수 있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된다. 전체 웹 데이터베이스에서 국제학 관련 저널을 많이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선정하여, 이용자가 추가로 찾고자 하는 정보의 인덱스 검색 또한 가능하다. 실 중앙에는 자료검색 외에도 인터넷 정보검색이 가능한 최신 기종 PC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인터넷 접근이 자유로우며, 개인 노트북을 이용한 무선인터넷도 가능하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열람석 설비 외에도 정기간행물서가 사이마다 1인용 쿠션

의자들을 비치하여 편안하게 자료를 브라우징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실에는 13종의 국내발행 국·영문 주요 일간신문을 구독·비치하여 다양한 시사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진3-1. 정기간행물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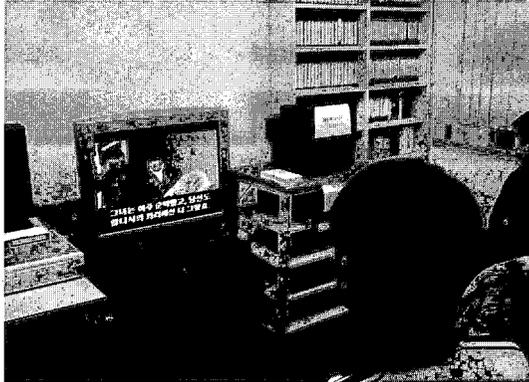


<사진3-2. 정기간행물실>

3.2. 단행본 및 영상자료실

4층은 단행본, 통계자료, 참고자료 및 영상자료로 구성된다. 단행본실은 모빌렉을 설치하여 한정된 공간에 많은 도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0여석의 열람석과 대출대가 있는 단행본실은 자료를 열람하고, 대출, 반납하는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영상자료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있어 개인 또는 5-6인 단체열람이 가능하며 세미나가 가능하다. 영상자료는 관외 대출이 제한되고, 영상자료실 내에서만 관람가능하다. 단, 교수들이 강의를 위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열람시키기 원하는 경우에 한해, 당일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수업에 영상자료가 참고자료로 지정되어 관람을 위해 학생들이 영상자료실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영상자료실에는 위성방송이 가능한 TV가 설치되어 7개 언어권의 방송 시청을 할 수 있다.



<사진4. 영상자료실>



<사진5. 정보검색실>

3.3. 정보검색실

국제학도서관은 자료 열람실 외에 별도의 공간에 정보검색실을 두고 있다. 60석의 정보 검색실은 학생들의 PC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통계수업 등의 강의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4. 국제학도서관의 특성

4.1. 커리큘럼 라이브러리

도서관의 장서는 일반적으로 DDC나 KDC에 의한 주제 분류로 나뉜다. 국제학도서관에서는 DDC 분류에 앞서 전공과 지역으로 1차 구분하였다. 일반, 국제통상, 국제협력,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로 대분류를 하고 지역별로 좀 더 세분화 한 후에 주제 분류를 하였다. 이는 특정지역에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브라우징할 수 있어 전공자에게 좀 더 다양한 접근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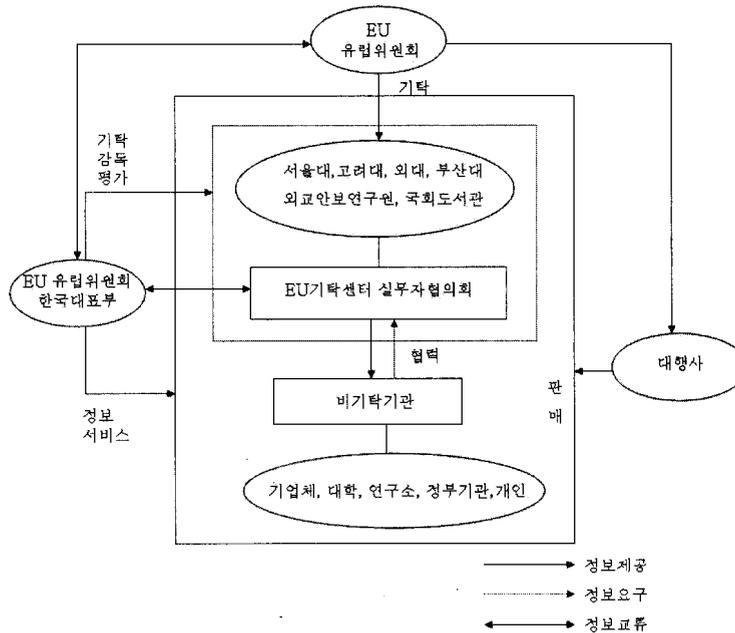
4.2. EU 정보센터

국제학 도서관은 유럽연합이 지정한 국내 Document Center로서 EU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분야의 단행본, 정기간행물, CD-ROM(각종 통계 및 Official Journal), Microfiche (EP Report) 자료 등을 EU 출판국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정리·보관하고 있다.

EU정보센터는 국제학도서관 홈페이지에 EU정보센터 안내와 더불어 EU관련 사이트인

EUROPA(EU 서버)와 한국EU학회 (EUSA-KOREA)를 연결하여 유럽연합의 활동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 자료검색을 통하여 입수 정리된 EU자료들을 검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유럽연합 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도서관은 국회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고려대, 외국어대, 부산대학교와 더불어, 국내 EU정보센터로서 EU관련 자료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국내 EU 정보유통 및 이용

4.3. 일본자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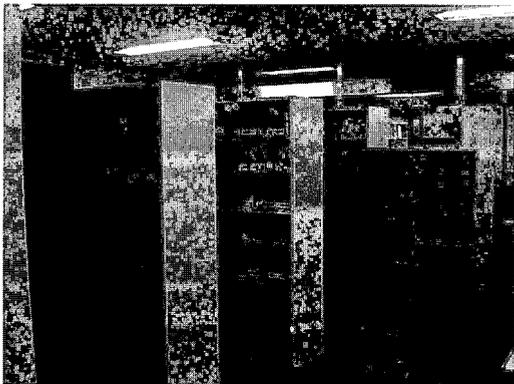
국제학 도서관 내 일본자료센터에서는 '일본연구 학술 인프라 구축'을 핵심적인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자료 수집과 일본 연구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해 왔다. 우선 다양한 분야의 일본 연구 서적·잡지 등 문헌 자료와 시청각 자료들의 수집에 힘써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 연구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서는 '닛케이(日經)텔레콤 정보 검색 서비스', '일본연구소 홈페이지 관리', '일본 자료 복사 대행 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닛케이 텔레콤 정보 검색 서비스'는 본 일본자료센터의 특화된 서비스로서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일본 자료 복사 대행 서비스'는 일본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호응을 얻

고 있다. 이상의 사업은 현재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4.4. 영상자료

국제화, 세계화의 거센 바람 속에서 국제학도서관은 우선 손쉽게 외국의 문화·정치·사회에 접할 수 있는 학습교재로서 영상자료에 착안하고 이를 한 두 점씩 모으기 시작하여 현재 극영화 924종, 기록영화 1,352종, 기타 35편을 수집하였다. 영상자료는 외국의 사정을 이미지로 재현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지역연구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이다.

아직은 작은 규모의 자료들이지만, 이를 만드는 데에는 조그마한 정성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하였다. 때때로 여의도, 청계천, 종로거리의 비디오 가게를 위시하여 동경, 로스앤젤리스의 뒷골목,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을 배회하면서 한두 점씩 모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재 국제학도서관에는 교육의 활용가치는 뛰어나지만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귀중한 영상자료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교내는 물론 외부의 영상자료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진6. 영상자료실>

Tagalog와 같은 동남아 국가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테이프와 BBC에서 제공하는 어학 비디오테이프도 비치하여 지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지와 시뮬라크르의 홍수 속에서 새로운 감수성을 지니게 된 학생들, 방학마다 배낭을 짊어지고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는 젊은 세대에게 활자화된 텍스트로, 그것도 이론 교육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바야흐로, 국제학도서관의 영상자료 수집정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4.5. 국제지역연구회원제도

국제학도서관은 국제지역연구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받아볼 수 있으며, 국제학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원에게는 학술지의 경우, 필요한 사항을 작성해서 보내면 실비로 우편 복사서비스

를 제공한다. 지방에 있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로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원문 복사서비스 협정이 체결된 대학도서관 이용자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5. 미래를 향한 국제학전문정보센터

국제학도서관은 국제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전문인력양성이라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국제대학원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최대한의 정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수많은 학술지며 각종 학위논문, 문서들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국제학 전문도서관이 됨으로써 국제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지원과 협력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자료와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본다. 국제학도서관은 서울대학교 국제화의 첨병이 되고 있는 연구지원기관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국제학전문정보센터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